

“수술비 못 내” “보험금 타게 암진단 해달라”

떼쓰는 환자들... 병원 ‘골머리’

불황에 악소문 퍼뜨릴까 이리지도 저리지도...

장기불황으로 수술비를 떼먹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가벼운 증상을 중증 질환으로 진단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떼를 쓰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이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암 진단서를 요구했던 것이다.

B병원은 퇴원 후에도 입원비와 치료비를 받지 못한 환자가 무려 3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중 정말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병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아 병원비를 내지 않은 채 퇴원한 경우다.

C안과는 라식수술 환자에게 수술비 절반을 돌려줬다. 160만원을 내고 양쪽 눈을 수술한 환자가 4개월 만에 진료를 받으러 왔다.

단 시력이 1.2로 좋아졌다. 하지만 환자는 시력이 수술 전보다 못하다며 수술비 환불을 요구했다. 병원은 시력이 목표치에 도달한 만큼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맞섰으나 환자는 5차례나 병원을 방문해 고성을 지르고,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엄터리 병원”이라고 악선전하는 바람에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D피부과는 시술 효과가 없다고 막 무가내로 우기는 환자에게 시술비를 줄여주거나 아예 덤으로 수차례 무료 시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40대 여성환자가 1회 시술에 10만원짜리 레이저 시술을 4차례 받은 뒤, 얼굴 피부가 오히려 손상됐다고 억지를 쓰는 바람에 같은 시술을 무료로 4차례나 해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오전에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Seoul, Busan, etc.) and a section for '주간날씨' (Daily Weather) with icons for sun, clouds, and rain.

오늘 ‘착한 운전, 선진 광주’ 선포식

이귀남 법무 광주 초도 순시



(75) 범시민운동본부 대표회장 등 800여 명의 민·관·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게 된다.

장흥출신 이귀남(59) 법무부장관이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운동’ 현장을 둘러보고 법무부 산하 기관 방문을 위해 5일 광주에 온다. 이 장관은 이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의 ‘착한 운전, 선진 광주’ 선포식에 참석하며 광주교·지검을 방문해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광주시 동구 학동 행복재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한 뒤 광산구 고통정보산업고(구 소년원)를 찾아 원생들을 격려한다. 이 장관은 고통정보고의 보호관찰시설 및 환경을 둘러본 후 원생들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소음으로 한우 육질 저하”

4,700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이천시 한우를 기르는 A씨가 인근 지역 공사의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시공사 측이 4천70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이 가족 피해 인정 기준인 60데시벨을 초과한 점과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과거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연협뉴스

“문화전당 일대 보호수를 지켜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오랜 세월 옛 전남도청과 광주 구도심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지켜왔던 ‘보호수’ 지키기에 인간힘을 쓰고 있다.

‘봄 안개’ 해상 충돌사고 3월에 집중

5년간 총 220건 발생

해상 충돌사고가 3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20건으로, 이로 인해 9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25명이 부상 당했다. 220건 중 충돌사고는 60건으로, 이 가운데 46.7%인 28건이 새벽(새벽 12시~오전 8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빗꽃 29일 ‘할짝’

봄의 전령사인 빗꽃. 올해는 언제 수줍은 첫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소식을 전해줄까. 광주에서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빗꽃을 구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역 빗꽃 개화 예상 시기는 오는 29일로 평년보다는 5일 늦고, 지난해보다는 7일 빠르다. 빗꽃은 통상 개화 후 1주일 뒤 절정을 이룬다. 광주보다 남쪽인 여수의 빗꽃 개화 시기는 28일, 군항제로 유명한 경남 진해의 빗꽃 개화시기는 다음달 4일로 예상된다.

A large advertisement for a 'National Flower Festival' (국립꽃축제) featuring various floral displays, including tulips and daisies, with prices and locations listed.

Advertisement for a 'Tiger Festival' (호랑이축제) featuring a large tiger illustration and text about tiger-related activities and products.

Advertisement for 'Cheolmanpyo' (철만표) brand products, featuring a tiger illustration and text about the brand's quality and products.